

2024년 12월 30일

보도참고자료

이 자료는 12월 30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9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2~2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는 「2022~2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을 발간하였음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의 협의체로서 금융 부문에 최신 IT기술 접목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금융정보화 사업을 추진
(<별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P.7) 참조)

**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였으며 금번 책자부터는 격년 주기로 발간

- 동 책자는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23년도 기준 IT운영 현황,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현황 등 국내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

* 20개 국내은행(3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78개 금융투자업자, 39개 보험회사, 8개 신용카드사 등 총 145개 금융회사

**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 총 60개 기관

- 전문(PDF 파일 형태)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

* 정책/업무-지급결제-금융정보화-추진현황

- 「2022~2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조

문의처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팀장 조규환, 차장 추승우, 과장 이정인, 조사역 성민정

Tel : 750-6764, 6652, 6613, 6649

E-mail : bokefp@bok.or.kr

공보관 : Tel : (02) 759-4015, 4016

“이 보도참고자료는 인터넷(<https://www.bok.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붙임)

2022~2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I. 금융IT 운영 및 이용 현황

1 금융회사 총 IT인력 중 내부인력 비중 증가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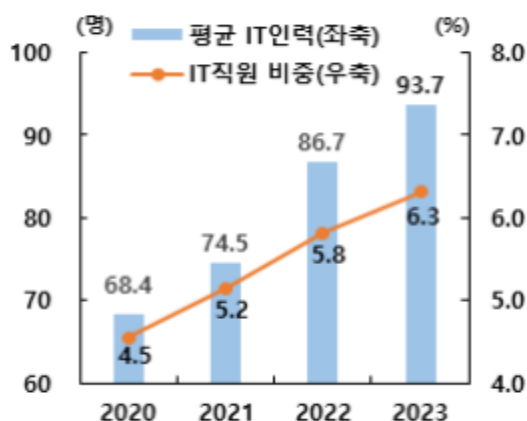
- 2023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IT인력은 평균 93.7명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른 IT인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0%('22년 86.7명 → '23년 93.7명) 증가

* 20개 국내은행(3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78개 금융투자업자, 39개 보험회사 및 8개 신용카드사 등 145개사 기준

- 내부 IT인력이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20년 4.5% → '21년 5.2% → '22년 5.8% → '23년 6.3%)
- IT 업무별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행정지원 및 기타인력('22년 21.4% → '23년 20.3%)은 축소된 반면

시스템 기획·설계·개발(59.1% → 59.6%) 및 시스템 운영(11.2% → 11.7%) 인력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

금융회사 내부 IT인력 추이



금융회사 내부 IT인력 업무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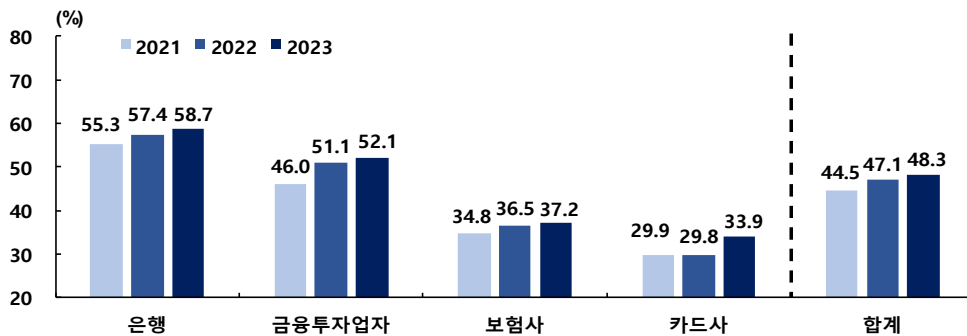
- 한편 2023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부 IT인력(외주 등 아웃소싱)은 평균 100.3명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내부 IT인력 증가율(8.0%)을 하회하는 3.0%('22년 97.3명 → '23년 100.3명)에 머무름

→ 이에 따라 내·외부 총 IT인력 중 **내부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21년 44.5% → '22년 47.1% → '23년 48.3%)

* 업종별로는 은행(58.7%), 금융투자업자(52.1%), 보험사(37.2%) 등의 순

** 이는 금융회사가 우수한 내부 IT인력 확충을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

업종별 총IT인력 중 내부 인력 비중 추이



2 금융회사 IT예산 증가 및 초소형 서버 이용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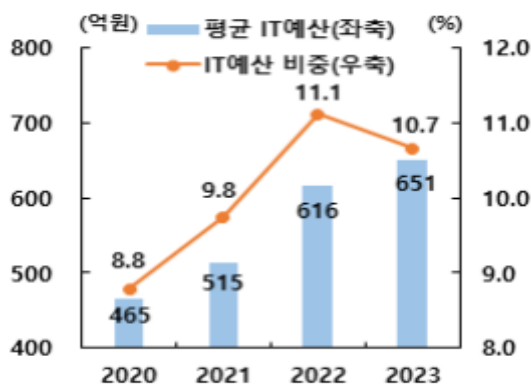
□ **2023년중** 국내 금융회사의 **IT예산**은 **평균 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22년 616억원 → '23년 651억원) **증가**하였으며 금융회사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말 **10.7%**를 기록

* IT예산 구성별로는 IT인력 확충 등으로 운용예산 비중('22년 64.6% → '23년 66.9%)은 확대되고 전산설비 투자 등 자본예산 비중(35.4% → 33.1%)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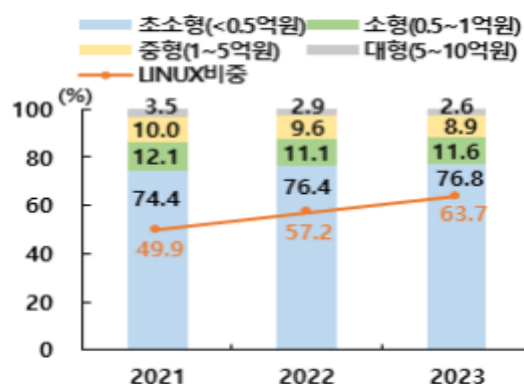
□ 국내 금융회사 보유 **서버급 전산기기**는 **비용효율적인 저사양의 초소형**(구입가격 0.5억원 미만)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이는 IT기술 변화에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Linux 운영체제 전산기기를 도입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금융회사 IT예산 추이



서버급 전산기기 보유현황



3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뱅킹 및 트레이딩 이용 비중 확대

□ 2023년중 인터넷 뱅킹 및 트레이딩 등 주요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

- 국내 은행 및 우체국금융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서비스(자금이체 및 대출신청)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9%(일평균 2,265만건), 7.4%(82조 56억원) 증가
-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트레이딩(홈·웹·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주식 매매 및 자금이체)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1%(일평균 3,136만건), 11.2%(60조 7,162억원) 증가

주요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현황¹⁾(일평균)

연 도	인터넷뱅킹 ²⁾		인터넷트레이딩 ³⁾	
	이용건수 ⁴⁾	이용금액 ⁴⁾	이용건수 ⁵⁾	이용금액 ⁵⁾
2021r	17,321 (18.0)	70,554.1 (19.6)	42,340 (29.9)	86,796.7 (5.0)
2022	19,712 (13.8)	76,338.8 (8.2)	27,244 (△35.7)	54,609.0 (△37.1)
2023	22,652 (14.9)	82,005.6 (7.4)	31,360 (15.1)	60,716.2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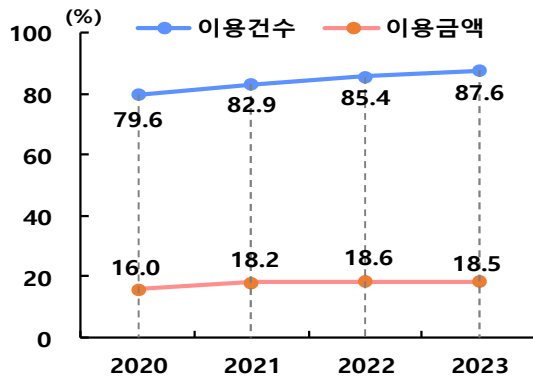
주 : 1)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및 우체국금융의 자·타행이체 기준
3)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실적 합계 기준
4) 자금이체 및 대출신청 등(조회 제외) 5) 주식매매 및 자금이체 등(조회 제외)

□ 한편 인터넷 뱅킹 및 트레이딩 서비스 중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 비중은 편의성 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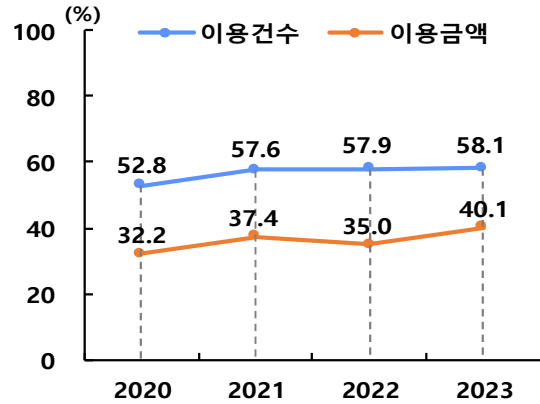
- 2023년중 모바일뱅킹 비중은 이용건수 기준 87.6%, 이용금액 기준 18.5%*를 차지하였으며, 동 기간중 모바일트레이딩 비중은 이용건수 기준 58.1%, 이용금액 기준 40.1%를 기록

* 이용건수 비중에 비해 이용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모바일뱅킹이 비교적 소액 자금이체에 주로 이용되는 데 기인

인터넷뱅킹 내 모바일뱅킹 비중



인터넷트레이딩 내 모바일트레이딩 비중



4 CD/ATM 설치 대수 감소세 지속

□ 2023년말 현재 국내 CD/ATM 설치 대수는 11만 2,552대로 2018년 (11만 9,899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CD/ATM의 감소세('21년 △4.3% → '22년 △3.2% → '23년 △2.9%)가 이어지는 가운데

VAN 사업자가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운영하는 CD/ATM도 2023년 들어 2.4% 감소로 전환

CD/ATM 설치 대수¹⁾

(대, %)

연 도	합 계	금융회사 ²⁾	국내은행	VAN사업자 ³⁾
2021	117,282 (△0.3)	67,176 (△4.3)	50,814 (△5.5)	50,106 (5.6)
2022	115,642 (△1.4)	65,036 (△3.2)	48,720 (△4.1)	50,606 (1.0)
2023	112,552 (△2.7)	63,175 (△2.9)	46,737 (△4.1)	49,377 (△2.4)

주 : 1) 연말 기준,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2) 국내은행(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포함), 우체국, 저축기관이 운영하는 CD/ATM

3) 한국전자금융, 효성TNS, 코리아세븐, 에이티플러스, 한네트 등 자동화기기사업자가 은행점포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CD/ATM

II.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주요 추진 사업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공동망 구축, 금융포용 확대, 금융표준 마련 등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2~23년중에는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ATM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정보화 관련 국제 표준 제정** 활동 등을 지원

① 민간 지도 플랫폼에서도 ATM·은행 점포 위치 등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맵서비스 DB 이용 채널***을 확대('22.12월, '23.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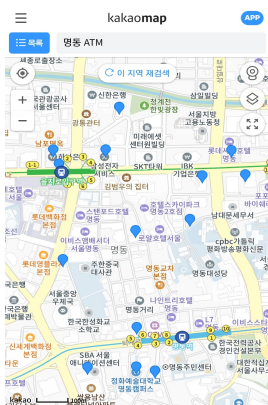
* 네이버지도, 티맵, 현대·기아차 네비게이션('22.12월), 카카오맵('23.9월)

② **실물 현금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앱만으로 17개 금융기관 **ATM**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현금카드 기반의 「**공동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개시*('23.12월)

* 모바일현금카드와 삼성페이 서비스 연계('24.9월 MOU 체결, '25년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 예정) 등을 통해 추후 해당 서비스 이용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

ATM 관련 금융맵 서비스 화면(예시)

<지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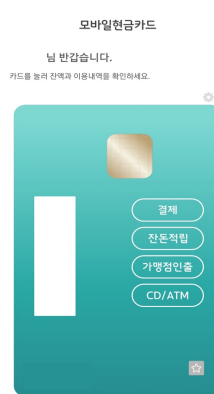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맵

<목록형>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ATM 이용 화면(예시)



자료: 금융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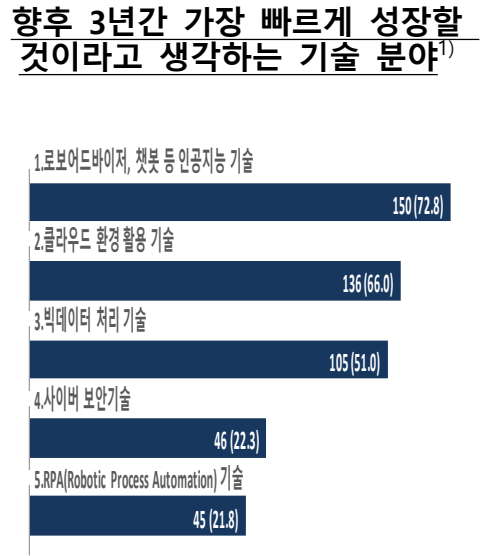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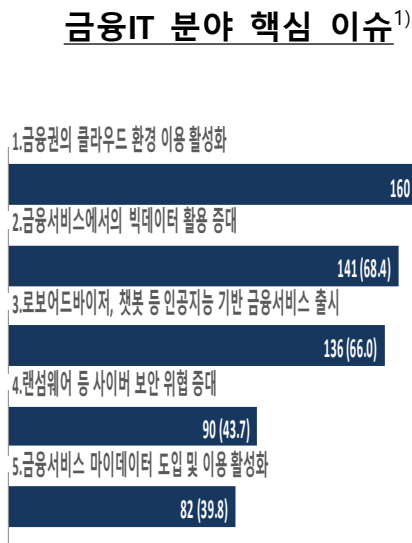
③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016년 제정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에 기반한 **바이오인증 국제표준**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23.3월)

* ISO 19092 (Financial Services - Biometrics - Security framework)

III. 금융IT 이슈 및 트렌드 전망

※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 IT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중복 응답 가능)

- ☐ [금융IT 분야의 핵심 이슈]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 활성화(77.7%)',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68.4%),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66.0%)'를 가장 많이 언급
- ☐ [향후 3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기술 분야]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72.8%)', '**클라우드 환경** 활용 기술(66.0%)', '**빅데이터 처리** 기술(51.0%)' 순으로 응답



주: 1) 응답자 수(비중, %), 복수응답 가능

주: 1) 응답자 수(비중, %), 복수응답 가능

- ☐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71.4%)',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52.9%)',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확대(47.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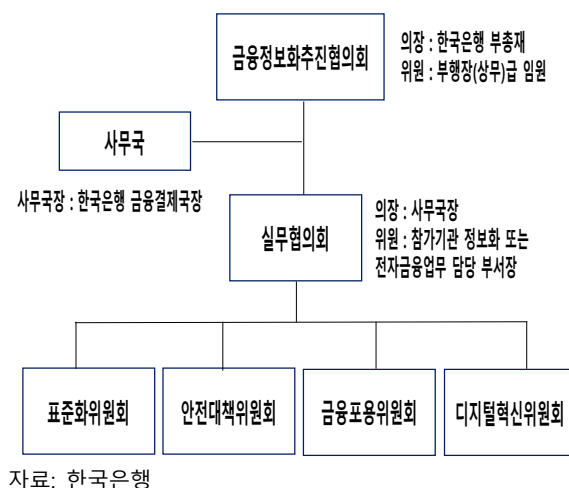
<별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
-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9년 8월 현재의 협의체로 개편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 금융권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동망 구축 사업,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 2023년말 현재 한국은행, 은행*(18), 비은행 금융회사(7), 금융유관기관(6)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 중

* 인터넷전문은행(2개사) 포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조직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가기관

(2023년말 현재)

구 분	참가기관명
은행 (18)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수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산업,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비은행 금융회사 (7)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손해보험, BC카드, 하나카드,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금융 유관기관 (6)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금융보안원

자료: 한국은행